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약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기 마음 속을 살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2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8호 2017년 3월 8일 수요일

대행 선사 禪法, 학술 연구 시작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활동 본격화

모든 만물만생이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共食)하는 한마음의 도리임을 설파하고,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 사진)의 선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 연구가 본격화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2월 27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 창립 배경과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선풍(禪風)과 사상, 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창립됐다.

초대 원장으로는 불교 석학인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선임됐고, 대행 선사 관련 박사 논문을 처음 썼던 혜선 스님이 연구실장을, 대행 선사의 선 수행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 청강 스님이 연구부실장으로 참여한다. 김호귀 박사와 박소령 박사는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해 대행선 연구를 진행한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대행 선사의 크나큰 발자취를 기록에 남겨 후학들에게도 선사의 법미(法味)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연구원을 창립했다"면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대행선을 보급 · 전파해 제2, 3의 선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 창립에 5년이 걸린 것은 올바른 선양 · 연구 사업을 위해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창립 1년차를 맞는 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 주제는 '대행선이란 무엇인가'이다. 이는 대행 선사가 수많은 설법 등을 통해 남긴 '대행선'의 요체를 정의하는 기초 작업이다. 2020년까지 진행되는 연구들 역시 대행선의 학술적 이론을 닦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대행선연구원은 1년차 이후 연구 주제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2018년) △대행선의 수행과 깨달음(2019년) △한국불교에서 대행선의 위상(2020년)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다.

대행선에 대해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은 "대행 선사의 수행법은 관법이다. 중국의 종파불교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대행선은 본성을 진여(眞如)로 보는 '성종(性宗)'에 가깝다"면서 "일체가 한마음 주인공(主人空)의 나툼이라는 것을 관법을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8월 대행선연구원 창립
학자 5명 상근하며 연구 진행
오는 5월 19일 첫 학술대회
발표논문 英譯해 세계에 배포

대행선 사상 · 정체성 등 연구
禪法 보급 · 전파도 박차 계획
"제2,3의 선사 나오도록 노력"

대행선연구원 연구부실장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는 생활 속에서의 관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일체가 한마음 불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믿고, 내려놓고 일상에서의 나툼을 지켜보고, 그 가운데에서 참구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성이 발견된다. 또한 대행 선사 관법의 핵심은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회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은 이 같은 1차년도 연구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19일 오전 9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대행선의 요체와 사상적 특징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평래 원장의 '한마음을 요체로 한 대행선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대행 선사 행적에 나타난 혁신불교의 성격'(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대행선 형성의 사상적 배경-본래성불사상과 관련하여'(김호귀 객원연구원) △'대행선사의 한마음사상에 대한 교리적 근거 고찰'(박소령 객원연구원)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연원 고찰'(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김경집 진각대 교수,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 남수영 동국대 외래교수가 참여한다.

향후 발표 논문들은 영역 작업을 거쳐 한글 · 영역 합본 형태의 논문집으로 출간돼 국내외 유명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평래 원장은 "한글과 영역 합본 논문집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은 대행선 사상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대행선 연구를 통해 붓다의 가르침이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차GBC 건립 전면 재검토하라"

조계종, 영향평가 분석
강남구에 의견서 제출
공정한 공청회 개최 요구도

지난달 현대차 신사옥(GBC)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 초안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데 이어 조계종이 사업 전면 재검토와 공청회를 요청했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현 · 원명)는 2월 28일 현대차 측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조계종 환경위원회 소속 전문가 분석결과를 발표한 뒤 3월 2일 강남구청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제출된 평가서는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절차에 따른 요식적 행위로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인허가 관련 기관장(시장 · 구청장)이 참여해 사업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한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현대차 측 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대안 및 세부항목, 지표항목 등 부실로 전면수정 △전통문화경관과 일조권, 도심 생태성을 증대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주변지역 현황 알 수 있는 도면이나 그림 제시 △공공시설물 영향 기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인 교수(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는 "문화재인 봉은사 지역에 대한 일조피해 및 야간 조명 등 빛 공해 사전 · 사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계절별 차이가 크므로 최소 1년 사계절 일조량에 대한 실측과 영향을 분석한 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측 초안에서는 일조장해 판단기준을 법원 판례에 뒀다. 이에 따른 영향평가에서 봉은사 선불당 기준 햇빛을 가리는 시간이 오전 8~9시 사이 총 44분으로 분석했다. 즉 햇빛을 가리기는 하지만 법원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일조장해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영경 교수(동국대 경주캠 자연과학대학장)는 "보고서에 제시된 그림이나 도면이 사업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뒤 "105층 건물은 어떠한 설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조화되기 어렵다. 도시적 맥락에는 부응하지 않는 계획으로 층고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달마보더들의 열정 늦겨울 설원 녹이다

평창 D-340, 달마 오픈 스노보드 대회

불교계가 주축이 돼 국내 최대 스노보드대회로 발전시킨 '달마오픈 챔피언쉽'이 3월 1일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렸다. 올림픽 규격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들을 비롯해 아마추어 및 유소년 선수 1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03년부터 달마오픈을 개최해 온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이곳에서 달마오픈 대회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도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등 스님들과 지역사찰 신도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이런 불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수들은 평소보다 과감히 기술을 선보였다. 대회에서 대중들의 열정은 늦겨울 강원도 설원을 녹일 듯 뜨거웠다. 〈관련 기사 5면〉

평창=노덕현 기자



경기 직전 출발선에 선 스노보더들이 힘찬 함성을 내지르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회를 14년째 이끌어 온 호산 스님(사진 왼쪽 네번째)의 미소 속에 흐뭇함이 느껴진다.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